

## [감상문]

최근 몇 년간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나도 다양한 언어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막연함이 있었다.본영상에서 김대식 교수님은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더 이상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AI를 더 잘 활용할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그 방법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AI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두번째는 바이브코딩을 해보는 것,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5분단편영화 만들 어보기다.특히 “인공지능은 마치 자전거 타는 기술과 같다”는 말이 인상깊었는데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활용해보며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AI를 어렵다고 느끼며 시도하지 않았던 나를 돌아볼수 있었다...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으로 판단력을 강조했다.AI는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제시하지만,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믿을지는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것이다.생각해보니 평소에 AI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얻을 때 그 답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본영상을 통해 AI를 단순히 편리한 도구로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더 똑똑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동시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나중에 도태되지 않고 변화하는 AI시대속에서 살아남을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도 느꼈다.